



암, 조기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다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이 있다!

오늘도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국민들을 암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검진을 통한 암의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간암 조기 발견 사례	· 광주시 북구에 거주하는 서○○(남, 61)씨는 광주·전남지부에서 간암 의심소견을 받고, 한국병원에서 현재 치료 중에 있다.
	·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김○○(남, 55)씨는 중앙검진센터에서 간암 의심소견을 받고, 경희대병원에서 수술 후 현재 치료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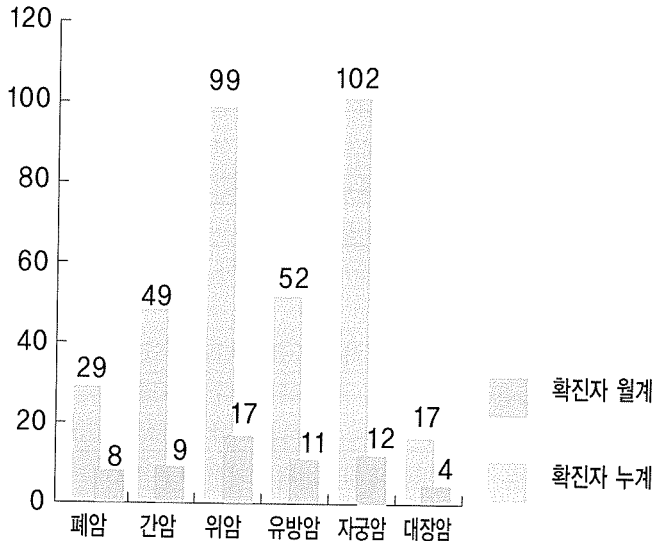
[한국건강관리협회의 2005년 주요 암 발견현황]

7월 암의심 소견자 497명

확진자 : 61명

연간 암의심 소견자 누계 2,973명

확진자 누계 : 348명



간암의 원인

모 든 악성 종양과 마찬가지로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적 요인에는 바이러스성 간염, 혈색소성 및 알코올성 간질환 등과 같은 만성 간질환, 곰팡이에서 유래한 아플라톡신 등을 포

함한 화학물질, 영양 상태 및 호르몬 등이 가능한 원인으로 제시된다. 특히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규명된 이래 바이러스성 간염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유전적 요인으로는 근래에 팔목할 만하게 발견되고 있는 분자 생물학적 연구에 힘입어 암 유전자 및 억제 암 유



전자 등의 유전적 요인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멀지 않은 장래에 그 기전이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간암의 증상

간암에서만 특별히 나타나는 증상은 없으나 일반적인 증상을 살펴보면 간경변의 증세와 같다. 대개 초기증상으로는 몸이 노곤하고 소화가 잘되지 않으며, 헛배가 부르고 식욕이 없어지며 우 상복부에 불쾌감을 느끼는 등 막연한 증상이 많다.

가끔 우측 늑골의 아래로 단단한 돌덩이 같은 것이 만져지거나 통증과 때로는 간헐적으로 바늘에 찔리는 듯한 아픔이 간 부위에서 느껴지며 주로 밤중에 심해진다.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 전신쇠약, 상복부와 견갑부 동통 및 체중 감소이다. 그러나 간암의 증상은 암이 진행되기 전까지 증상이 거의 없는 것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데 증상의 기간은 아주 짧아서 75% 이상에서 병력 기간은 6주 미만이다. 약 80%의 예에서 체중 감소와 허약이 나타나며, 복통은 반수에서 나타난다.

통증은 둔하고 지속적이지만 괴사된 결절의 파열이나 혈관의 침식으로 복강 내 출혈이 있을 때는 급작스런 통증을 유발하는데 약 14%의 예에서는 첫 증상으로 발현된다.

간은 대개의 경우 종대되어 있으나 동통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황달, 복수, 비장비대를 포함한 많은 증후가 나타나나 종양보다는 내재되어 있는 만성 간 질환에 의한 경우가 많다.

간암의 초기 진단

간암은 증상을 느낄 정도면 치명적이나 조기 발견만 되면 완치가 가능하다.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최근 혈액검사, 초음파 촬영술이 발달해서 암 조직의 지름이 0.5cm만 되어도 찾아내 조치할 수 있다.

간암의 치료법

간암의 치료법을 보면 간 절제술, 간이식, 간 동맥 화학색전술, 경피적 무수알코올 주입 요법 등이 있다. 이 중

간 동맥 화학 색전술이나 경피적 무수 알코올 주입요법은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되는 보조적 치료법이며, 가장 유일한 근본적 치료는 수술적인 절제술이라고 1986년 미국 보건성 암 연구소에서 발표하였다.

간암의 수술적인 절제술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는 암종이 단발성이거나 국소적이어서 하고, 임파절이나 혈관 혹은 담관의 침윤이 없어야 하고, 원격 전이의 증거가 없어야 한다.

비록 종양이 해부학적으로 절제 범위 내에 있더라도 간경변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 무리한 절제는 수술 후 간부전을 야기시킬 수 있다.

화학요법으로는 100명 가운데 한 명이 완치된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간암 치료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정도나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암 부위를 수술한 뒤 화학요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간암의 예방법

간암의 예방법은 간암 발생의 여러 요인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첫째, B형 간염에 대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며, 둘째, 무분별한 성 관계의 금지, 셋째, 수혈이나 마약 남용을 방지하여 C형 간염을 예방하고, 넷째, 가족 중 간염 환자가 있을 시 가족 사이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고, 다섯째, 술자리에서 잔을 돌린다거나 공동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등의 음주 문화의 개선, 마지막으로 변질된 음식으로부터 아플라톡신 등을 섭취하지 않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B형 간염 항원의 보균자는 간암의 발생 빈도가 매우 높은 간암의 고 위험군에 있기 때문에 매년 2~4회 정도 초음파 검사와 혈중 알파페토 단백질 등을 측정하여 간암의 발생 여부에 대한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

식생활 예방법으로는 항염증에 적용하는 노루귀를 섭취하면 좋고 식사는 울무를 주식으로 한 현미, 검정콩 식사가 좋다. 살구씨에 함유된 아미구다린을 비타민 B17이라 하는데 이것이 항암 작용이 있으며 옛기름이나 컴프리에 들어 있는 알란토인 스쿠알렌 성분도 항암 효과가 있다. ☺